

도 전분은 높은 인슐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에 연자들은 정상인 10명을 대상으로 포도당, 자당, 전분 그리고 과당 각 75g씩 유동식 형태의 당부하 검사를 시행하여 혈중 인슐린, 혈당, 글루카곤, C-peptide, 성장호르몬등을 공복시와 당 섭취후 30분, 60분, 90분, 120분에 각각 혈청을 채취, 측정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혈당치는 포도당과 자당 부하검사 사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데 반하여 포도당 및 자당 부하검사는 전분 및 과당 부하검사에 비해 30분, 60분에서 각각 높은 혈당치를 보였다($p < 0.05$).

2) 혈중 인슐린치는 포도당과 자당 부하검사의 경우 전분 및 과당 부하검사에 비하여 30분, 60분, 90분에서 뚜렷한 상승을 보였고($p < 0.05$), 특히 자당은 포도당에 비하여도 60분과 90분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p < 0.05$).

3) 그러나 전분은 과당 부하검사에 비해 30분에서 낮은 인슐린반응을 보였고($p < 0.01$), 포도당과 자당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상승을 보여주어 이전의 연구 보고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4) 혈중 C-peptide 역시 인슐린치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인슐린에 비하여 각 부하검사간의 차이가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p < 0.01$).

5) 혈중 글루카곤은 여러 당 부하검사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6) 성장호르몬 역시 여러가지 당 부하검사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16. 말단비대증 환자 10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

경희의대 내과

장영운 · 양인명 · 김진우 · 김영설
김광원 · 김선우 · 최영길

말단비대증 환자의 임상경과 및 치료에 대한 비교판찰은 외국의 경우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보고가 드물다. 이에 연자들은 1979년 5월부터 1984년 7월까지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말단비대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거나 또는 현재까지 치료중인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 병태생리 및 치료효과를 비교 관찰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1) 남녀비는 3:7, 평균연령은 40세, 평균 유병기간은 9년 6개월이었다.

2) 전 환자에서 전형적인 말단비대증의 외형을 보였으며 증상빈도는 두통, 발한, 무력감, 시력장애 순이었다.

3) 전 환자에서 Skull x-ray 상 터어키안이 커져 있었고 4예는 후상상돌기가 파괴되어 있었다.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모든 예에서 터어키안 내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4) 당부하에 의한 성장호르몬 억제반응과 인슐린 유도 저혈당에 대한 성장호르몬의 반응은 모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5) TRH에 대한 성장호르몬의 역설적 반응은 6예에서 시행하였던 바 모두 반응을 보였으나 LRH에 대한 성장호르몬의 역설적 반응은 3예에서 시행하였던 바 모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6) 2예에서 Somatostatin 투여후 성장호르몬의 억제 반응을 보였던 바 기저치에 비해 성장호르몬이 1예에서는 85%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1예에서는 46%로 감소가 현저하지 않았다.

7) 수술을 시행받은 6예중 1예는 수술후 1년간 임상증상의 호전 및 성장호르몬의 기저치가 저하하였으나 재발하였고 나머지 예에서는 수술후 임상증상의 호전과 성장호르몬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17. 부신피질에 발생한 악성종양 1예 보고

경희의대 내과

이중연 · 양인명 · 김진우 · 김영설
김광원 · 김선우 · 최영길

부신피질암은 장년기에 잘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호르몬분비 유무에 따라 여러가지 임상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흔치 않은 질환이다. 악성종양에 의한 부신피질기능항진증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불량하지만 종양의 크기, 체중감소 유무, 뇨중 17-Ketosteroid 분비정도 및 조직학적 소견등에 따라 예후가 다르다. 치료로서 외과적 절제를 필요로 하며 O.P'DDD와 Aminogluthimide 등이 사용되어 왔다.

연자들은 1984년 10월 경희의료원 내과에 입원하여 부신피질암으로 진단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전신 무력감 좌측 상부부 동통을 주소로 입원한 46세 여자환자로 1983년 5월 부신피질암으로 인한 쿠싱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좌측 부신피질절제를 시행받았으며 수술후 호전되었다가 14개월후부터 복부팽만감,

5개월간 8 kg의 체중증가가 있었고 전신무력감이 있어 입원하였다. 이학적검사상 중심성 비만증, buffalo hump, 다혈증 및 청색상복부선조종 전형적인 쿠싱증후증을 보였으며 좌측 상복부 압통 및 양측 하지의 부종이 있었다. 생화학적 검사상 Na 143 mEq/L, K 2.8 mEq/L, Cl 94 mEq/L, 공복혈당치 144 mEq/dl 이었다. 24시간 뇨중 17-hydroxycorticosteroid와 17-Ketosteroid 배설을 각각 52 mg/g·creatinine, 40.1 mg/g·creatinine 이었다. 혈장 ACTH는 20 pg/ml 이하였으며 오전 8시 혈청 cortisol은 49 µg/dl 였고, high dose dexamethasone 억제실험에도 반응이 없었고 ACTH 자극실험과 metyrapone 실험에도 혈청 cortisol은 자극되지 않았다.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상 좌측 상복부에 12×10×8 cm 크기의 종괴가 있었고 3 cm 크기의 종괴들이 다수 좌측 신주위에 관찰되었다.

입원 제21병일째 환자는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좌측 상복부에 11×8×7 cm 크기의 dumbbell 형의 종괴 및 2 cm 크기의 전이성 종괴가 3개 좌측 신주위에 있어 이를 제거하였으며 병리학적 소견상 부신피질암으로 판명되었다.

수술후 환자는 곧 증상의 호전이 있었으며 4개월간 O.P'DDD(Mitotane®) 3.0 g/일을 투여하여 현재까지 쿠싱증후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18. 간세포암의 ^{99m}Tc-HIDA 간담도신티그램 소견

가톨릭의대 방사선과

이해규·정수교·박석희·박용휘

^{99m}Tc-phytate 간신티그래피는 간세포암의 진단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담도계 검사에 사용되는 ^{99m}Tc-HIDA는 빌리루빈과 같은 음이온 운반경로를 따라 간세포내로 집적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간세포암에서도 조직검사상 세포내에 담즙과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빌리루빈과 같은 경로로 섭취되는 ^{99m}Tc-IDA 유도체가 간세포암에 섭취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세포암은 세포의 분화도가 낮기 때문에 세포내 담즙과립의 수는 매우 적다. 그러므로 ^{99m}Tc-IDA 유도체 또한 정상세포보다 간세포암에서는 월등히 소량 섭취된다. 또한 간세포암내에는 정

상적 담도형성이 없기 때문에 섭취된 ^{99m}Tc-HIDA의 배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간세포암환자에 ^{99m}Tc-HIDA 간담도스캔을 시행하여 보면 병소가 초기영상에서는 냉소로 나타나나, 지연영상에서는 오히려 열소로 전환되므로 감별진단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이처럼 ^{99m}Tc-phytate 간신티그래피에서 냉소로 나타나는 병소가 ^{99m}Tc-HIDA 스캔에서 열소로 전환되는 현상은 간선종, 국소성 결절증식증(focal nodular hyperplasia) 낭선종 등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이들 질환은 핵제제 혈관조영술, ²⁰¹Ga 스캔 등에 의해서 감별이 가능하다.

이에 연구자들은 간세포암의 핵의학적 특이도를 높이기 위해, 1984년 9월부터 1985년 4월까지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간세포암환자에서 ^{99m}Tc-DISIDA 간담도스캔을 실시하여 좋은 성적을 얻었기에 그 경험을 보고하는 바이다

19. 각종 간·담도 질환에서 ^{99m}Tc-DISIDA 간·담도스캔에 관한 연구

전남의대 내과

범희승·김성렬·박광숙

조남중·김세중·윤종만

핵 의 학 과

김 지 열

^{99m}Tc-DISIDA는 높은 혈중 빌리루빈치를 보이는 간·담도질환에서도 다른 방사성제제에 비해 우수한 사실이 판명되었으며, 특히 급성담낭염, 담도폐쇄, 선천성 간·담도계 이상, 담즙유출 등에 큰 진단적 가치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3~10 mCi의 ^{99m}Tc-DISIDA를 주입해서 영상적인 차이만을 보았으나 연구자들은 400 µCi만을 주사하고 64분간 연속적인 촬영을 하였으며, 컴퓨터의 Software를 이용,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여 흥미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984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남의대 부속병원 내과 및 외과에 입원하여 이학적 및 검사실 소견, 복부초음파 및 CT 스캔, 그리고 수술소견 등에 의해 간·담도 질환이 확인된 19명의 환자(급성담낭염 3예, 만성담낭염 6예, 총담관부위폐쇄 4예, 급성간염 4예, 담낭결석 2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침 또는 점심식사 2시간 후 400 µCi의 ^{99m}Tc-DISIDA를 정맥을 통해 주사하고 즉시 스캔을 시작하였으며, 연속적으로 64분간 촬영하